이 세상 모든 만물이 신이다

손뼉을 치면 병이 안 생겨

시편 47편 "너희는 하나님에게 찬양할 때에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할지어다"라고 쓰여 있고, 격암유록에도 작작궁 작작궁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말씀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바닥에는 모든 장기의 반사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전주에 가 계신 조희준 승사가 수지침이라는 걸 가지고 암 환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질병의 환자들을 고쳤던 것입니다. 손바닥에 있는 모든 장기의 반사구에 침을 놓으면 병이 낫게 되어 있지만 수지침을 안 맞아도 손바닥을 힘 있게 치면 위장이 아주 건강해지고,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콩팥, 또 방광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이와 같은 모든 장기가 건강해지게 되고, 모든 장기가 건강해지면 병이 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손바닥을 치면 모든 장기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어 어떠한 병도 다 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이 죽을병이 안 걸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손뼉을 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손뼉을 치면서 예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육체라는 건 모든 장기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에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송가 부를 때 손을 콧날 위까지 올려서 있는 힘을 다해 손바닥을 치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손뼉을 치면 어떠한 병도 걸리지 않고, 계속해서 손뼉만 쳐도 영생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고장만 안 나면 안 죽는데, 고장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손뼉치고 많이 걷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장시간 차를 타고 다니는데 사실은 차를 타는 것이 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발바닥에도 역시 모든 장기의 반사구가 있기 때문에 많이 걸으면 모든 장기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고로 신장병, 심장병, 간에 대한 병, 위장병 등 어떤 병에도 걸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제단 식구들이 제단에 와서 늘 손뼉치고 예배 보는 것이 건강에도 매우 좋은 것입니다.

격암유록이나 성경에도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는 고로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힘 있게 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이 아프다고 살살 치는 사람이 있는데, 손바닥을 아프게 쳐야 효험이 있는 것이지 살살 치면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옛날 손바닥을 칠 때에 얼마나 힘 있게 쳤는지 손바닥이 전부 쫙쫙 벌어져서 피가 막 터져 나오는데도 피가 나오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치니까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던 것입니다. 피가 나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정성을 다해 손뼉을 치면서 예배를 보니까 갈라져서 피가 터져 나오던 것이 계속 치니까 다시 붙어가지고 피가 안 나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운동을 위해 산을 올라간다, 뭘 한다 하지만 손뼉 치는 것이 운동하는 것보다 몇 십 배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손뼉을 치면 한 2천 미터 달린 거와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힘 있게 손바닥을 치면 치매도 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머리를 안 쓰고 항상 멍하니 앉아 있으면 치매가 오지만 머리를 자꾸 쓰고, 손바닥을 힘 있게 치면 치매가 오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매가 오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양배추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늘을 많이 먹으면 암과 같은 죽을 병이 걸리지 않는데, 마늘이라고 하는 것이 항암제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마늘과 양파를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먹으라고 했는데, 이걸 부지런히 먹은 사람들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 알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영원무궁토록 살 사람들인 고로 영원무궁토록 사는 방법을 아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상대 교수를 전도하다

어제 이 사람이 진주제단에 갔었는데, 진주제단에 경상대학교 교수였던 원로교수가 나왔는데, 도대체 영생을

구세주 조희성님

한다는데 뭘 가지고 영생하는가 한 번 알아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알아보려고 왔다가 코가 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긍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는데, 죽지 않는다는 학설을 논하고 있으니, 6000년 인류역사 이래 한 번이라도 이런 학설을 논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교수님한테 "이 세상에 학문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당신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즉 당신이 교수라고는 하지만 아는 게 없다는 의미로 한 말인 것입니다. 면전에다 대고 학문이 없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픽하고 웃었으나 이 사람이 사람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신인데 물질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 세상 학문은 학문이 아닌 것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공기도 신이고 이 세상 만물이 다 신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논했던 것입니다. "원자 하나 하나가 모여서 물질이 형성되고, 원자 속에는 중성자가 중심부에 있고 마이너스 전자가 뺑뺑 뺑뺑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첨단 과학자들은 그 마이너스 전자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절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치가 맞지 않는 말이요, 돌아가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돌아간다고 해야 이치가 맞는 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교수가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끄덕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첨단 과학자들이 저절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저절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치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성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신인데 마귀의 영에게 갇혀 있는 상태이고, 마이너스 전자가 그 중성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영을 가둬 놓은 상태인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역시 긍정적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논하면서 옛날에 소련의 키일리언이라는 사람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사람을 찍었는데 그 사람의 몸에서 빛이 나온 것을 보고 오오라라고 하였는데, 나무 이파리를 찍은 사진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빛이 나왔다는 것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빛이 무엇인 줄 모르는 고로 오오라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 빛은 하나님의 신이요, 하나님의 물질인 중성자에서 발산되는 빛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물질의 중심부에는 하나님의 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빛인 고로 빛으로 발산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 과학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차원의 학설을 들은 경상대 교수는 불과 한 시간도 안 돼서 완전히 코가 꿰었던 것입니다.

공기도 신

공기도 신인 고로 사람이 공기를 마시면 산소가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산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물질인 생명자가 흡수되게 되면 피가 생명자를 운반하여 온 몸에 전달해 주는 고로 생명자가 에너지가 되어 사람의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산소의 외곽에 있는 것은 전부 썩히는 물질인 고로 산소를 이용해서 쇠를 자를 때에 불을 쇠에다 갖다 대면 쇠가 절단되는 것입니다. 산소는 쇠를 녹슬게 하는 산화 물질이라고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산소 호흡을 시키죠? 산소 호흡을 시키면 죽어가는 사람도 죽지 않게 되는 것은 산소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 산화물질은 분리되어 배설기관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중심부에 있는 중성자는 생명의 물질인 고로 그 생명의 물질이 생명자라는 물질이 되어 피를 통해 온 몸에 전달이 되는 고로 사람이 먹은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소화가 되면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 몸에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와 생명자가 합쳐져서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산소를 호흡해서 산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섭취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생명을 먹고 사는 신이지,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 그런 신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신이라는 것이 틀림없는 것은 사람 속에 나라는 의식은 마귀신이고 양심은 하나님의 신인 고로 핏속에 하나님의 피가 있고 마귀 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몸속의 세포가 시간이 되면 죽게 되고 다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세포는 깨끗한 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썩은 피로는 세포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안 썩은 피가 100% 있으면 100개가 다시 만들어지지만 썩은 피가 20% 몸속에 있다면 80개밖에는 재생되지 않는 고로 20개가 미달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름살이 생기고 힘이 없어지고 저항력이 약화되어 병에 걸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세포가 미달된 까닭인 것입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셔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어 병을 이기지 못하고 병이 점점 깊어지고 커지는 고로 결국은 사람의 생명의 불이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생명이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는 고로 생명의 불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사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꽃 속에도 있고, 나무 속에도 있고 풀 속에도 있고, 곡식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전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하면, 사람 몸속에서 생명의 물질이 계속 발산되고 있는데, 그 생명의 물질이 공기 속에 함유되어 있다가 비가 오면 빗물과 함께 땅에 떨어져서 풀이 살고 나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풀도, 나무도 생기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 몸에서 생명의 물질이 나오면 그 생명의 물질이 빗물과 함께 떨어지게 되고 모든 식물들은 뿌리를 통해서 그 물질을 흡수하는 고로 싱싱하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사람이 없는 달나라나 별나라에는 풀도, 나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곳에 사람이 살게 된다면 거기도 역시 풀이나 나무, 짐승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연구들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화성에는 사람이 없는 고로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 6월 30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고조선 시대의 와당과 시내산 암각화에 새겨진 동일한 고대 문자

대동강변 출토 와당 문자는 원시 히브리어(Proto-Hebrew)다

한국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은 약 3200년 전에 삼손 장수 사망 직후 이스라엘 소라 성읍에서 이주해온 단지파 민족이 세운 국가이고, 그들은 대동강 유역에 도착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천제단(天祭壇)을 쌓았고, 그 제단의 출입문 상단 지붕에 쌓은 기와에 원형 와당을 사용하였는데, 그 원형 수막새에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를 새겨 넣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사용된 지 알 수 없었단다. 심지어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태인조차도 자신들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어떤 문자를 사용했는지 몰랐으며, 또한 모세시대(the period of Moses)와 사사시대(the period of judges)에도 어떤 문자를 사용했는지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고대 히브리어(Ancient Hebrew)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 때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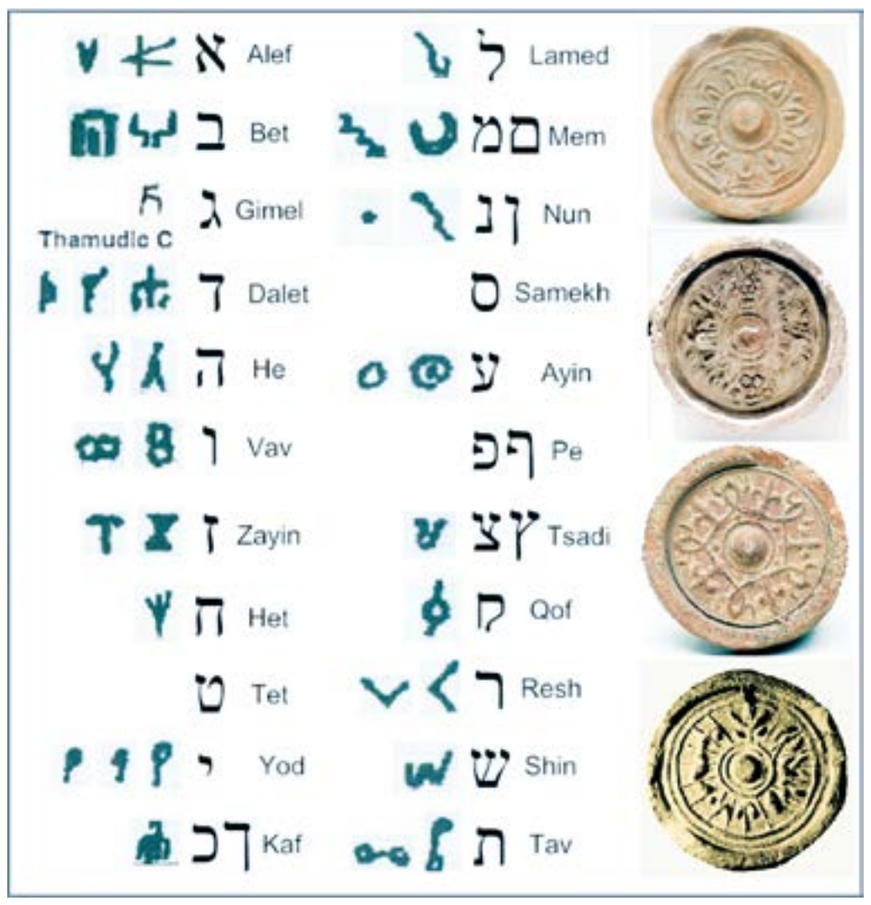
그런데 금세기에 들어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기록된 십계명 석판을 건네받은 곳이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 코스 중 하나인 시나이반도 시내산(Mt. Sinai)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미디안 땅)에 있는 라오즈산(Mt. Lawz)이 진짜 시내산(Mt. Sinai)임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라오즈산(Mt. Lawz: 아몬드산Mt. Almond) 주변의 암각화에서 발견되는 문자를 일찍이 원시타무딕문자라고 명명했지만 어느 민족이 사용했는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원시타무딕(Proto-Thamudic) 문자가 모세시대(the period of Moses)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이며 또한 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네게브 사막(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살면서 사용한 원시가나안어(Proto-Canaanite)와 동일함을 알게 되었다.

모세가 직접 새긴 홍해 기적의 암각화에 고조선 와당 문양과 동일한 문자로 기록

한편 미국의 고고학자 제임스 해리스(James Harris) 박사는 미국 남서부의 암각화에서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의 암각화에 새겨진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와 동일한 문자의 문양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의 저서 『The Name of God; from Sinai to the American Southwest』를 통해서 암각화의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를 현대 히브리어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해리스 박사의 올드네게브 문자표를 이용하여 4개의 고조선 와당(☞사진 참조)에 새겨진 원시 히브리어를 해독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시내산 주변에서 발견된 홍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암각화에 새겨진 원시 히브리어도 해석할 수 있었다.

약 3천 5백년 전에 사용된 고대문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Mt. Sinai: Mt. Lawz) 주변의 암각화에 새겨져 있는데, 그 고대문자가 고조선 수막새의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의 문양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로써 고조선 백성의 후예인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0지파 가운데 '단지파'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

※ 논문 참조 : **『대동강변 출토 히브리 문양 와당과 시내산(Mt. Sinai) 암각화 문양 비교』** 인터넷에서 논문 제목을 검색하면 열람 가능함.